

# 한국교회 내 몽골인 사역 및 신앙교육 지원 방안 연구

BATJARGAL BUDBAYAR 고신대 박사과정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몽골은 사회주의(Socialism)에서 민주주의(Democracy)로 전환한 지 34년이 되어가고 있다. 몽골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라는 개념에서 자유가 주어진 이후로 본토에서 해외 각지로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한국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목적은 유학, 이주노동, 가족동반, 결혼이민, 개인 사업, 출장, 기타 목적 등이 있다.<sup>1)</sup>

1990년 3월 26일에 몽골-한국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로써 아시아 공산권 중에서는 몽골이 최초의 대한민국 수교국이 된 것이다.<sup>2)</sup> 한편 주한 몽골대사관은 1991년 2월에 개설되었다.<sup>3)</sup>

1997년에 500명의 산업연수생을 처음으로 몽골에서 한국에 파견하였다.<sup>4)</sup> 그 당시 한국사회는 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아무런 도움과 배려를 줄 수 없는 현실이었다. 몽골 근로자들을 사랑으로 품은 곳은 바로 한국교회였다.

한국교회 내 몽골인 사역의 역사는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3교회 서울 외국인선교교회(유해근 목사 몽골교회), 온누리교회 몽골예배, 주안장로교회 몽골예배로 시작되었다<sup>5)</sup>. 재한 몽골인 사역은 199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1) 몽골통계청: <https://www.1212.mn/mn>

2) 권영순, 1996a: 389

3) 권영순, 1996b: 392

4) Narantsetseg, 2018: 2

5) 이해동 목사, 2016a: 5

이 28년의 역사를 이해동 목사의 견해로는 총 4기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기 태동기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로 유해근 목사의 교회시작이 중요했고, 2기 성장기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로 디엠엔 DMN(Diaspora Mongolian Network)이 2001년에 시작되었고, 3기 표출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로 2008년 몽골제자교회의 개척이 중요했으며, 4기 성숙기는 2012년부터 현재로 나눌 수 있다<sup>6)</sup>고 보았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몽골인 예배(교회)<sup>7)</sup> 숫자가 점점 늘었고, 2024년 현재는 62개의<표5> 몽골인 예배(교회)가 설립되어서 주님 앞에 모국어인 몽골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국 내 몽골인 예배(교회)가 초기에는 한국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한국인 또한 몽골인 목사가 독립해 사역하는 케이스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수가 2024년 기준으로 총 17개가 된다.

재한몽골인기독교연합회설립 MSAK(Mongolian Christian Association in Korea)은 2012년 5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재한 몽골인 교회들 연합 모임 및 행사를 하고 있다<표6>.

재한 몽골인 사역은 199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교회 내 몽골인 사역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한몽골인 이주 노동자 선교 전략 (장주창, 2002), 몽골리안 다이스포라 네트워크 선교전략 (서기원, 2003), 재한 몽골 근로자 사역을 중심으로 한 몽골 선교전략 (너밍에르텐, 2008), 지교회의 통합적 이주민 선교 전략 연구: 상덕교회의 몽골인 사역 중심으로 (임채훈, 2009), 한국에 있는 몽골인 교회 현황과 대안 (사랑치맥, 2015), 재한 몽골 청소년들의 문화 지능(CQ) 발달과 기독교 선교학적 함의 (김창운, 2021) 등의 연구들이 나왔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선교 중심적이어서 한국교회 내 몽골인 사역자들 중심으로 한 그들만의 한국교회 내에서의 사역을 기독교교육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소홀하다. 그들의 사역과 사역의 중심 요소인 신앙교육을 다룬 연구는 없는 것이다.

본 연구의 1차 자료는 한국에서 몽골인 사역을 최초로 시작한 한국인 목사 및 재한몽골인기독교연합회설립 MSAK(Mongolian Christian Association in Korea) 부회장을 2018년부터 맡아서 현재까지 섬기는 몽골인

---

6) 이해동 목사, 2016b: 6

7) 한국교회 내에서 몽골어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몽골인 예배로 명칭하고 독립되어서 몽골어 예배를 하는 경우를 몽골인교회 또는 몽골교회로 명칭하고 있다.

목사를 만나 수집하였다. 일부 자료는 기록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자료는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내용들을 연구자가 직접 한글로 번역한 후 관련된 표를 만들어서 정리했다. 한국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선교 특히 세부적으로 몽골과 몽골인 사역자들의 신앙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원칙적으로 문헌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에 따라 진행된다.

I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연구의 방법과 내용을 다룬다.

II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써 1. 한국 사회 내 몽골인들의 체류 목적 및 현황, 2. 한국교회 내 몽골인 사역의 역사 및 현황, 3. 신앙교육의 사전적 의미 및 몽골어와 한국어의 ‘신앙교육’ 사전적 의미 비교, 4. 몽골인 사역의 현실과 이상적 신앙교육의 괴리 및 해결 방안이라는 4가지 내용의 소 주제들을 다루었다.

III 장에서는 논문의 결론을 내린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한국 사회 내 몽골인들의 체류 목적 및 현황

몽골은 사회주의(Socialism)에서 민주주의(Democracy)로 전환한 지 34년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몽골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라는 개념에서 자유가 주어진 이후로 해외 각지로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한국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목적은 유학, 이주노동, 가족동반, 결혼이민, 개인 사업, 출장, 기타 목적 등이 있다.

[표1] 몽골인들의 해외 체류 목적

구분	남자 비율	여자 비율
유학	34.17%	34.22%
이주 거주	10.05%	13.18%
이주노동	12.91%	8.32%
개인 사업	12.43%	12.74%
가족동반 거주	20.31%	20.84%
기타	8.83%	10.00%

출처: 몽골통계청 자료 2024.01

위에 몽골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인 <표1>을 살펴보면 몽골인들의 해외 체류 목적을 유학, 이주거주, 이주노동, 개인 사업, 가족동반, 기타 등의 구분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성별로 기준해서 비율을 남자 비율 및 여자 비율로 조사하였다. 유학, 개인 사업, 가족동반 이유는 남자 비율 및 여자 비율이 가장 엇비슷하게 나타난다. 이주노동 목적은 남자 비율이 여자 비율보다 4.59% 더 많고, 기타 목적이 남자 비율이 여자 비율보다 1,17% 적게 나타난다.

#### (1) 한국과 몽골의 외교

1990년 1월, 몽골 재야세력의 민주화 운동이 더욱 격화하여, 1990년 3월 12~14일 간에는 몽골 인민혁명당(집권 공산당) 중앙위 제8차 전체회의에서 드디어 공산당이 스스로 일당독재를 포기하고, 당 중앙위정치국 및 서기국원이 전원 집단사퇴하였으며, Ochirbat<sup>8)</sup> 대통령을 새 당서기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그 뒤 며칠 되지 않아 주일 몽골대사관에서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신청이 들어왔다. 한국 정부는 이기주 외무차관보를 몽골에 파견하였고 3월 26일에는 드디어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로써 아시아 공산권 중에서는 몽골이 최초의 대한민국 수교국이 된 것이다.<sup>9)</sup> 한편 주한 몽골대사관은 1991년 2월에 개설되었다.<sup>10)</sup>

8) Ochirbat(1992년 2월 12일-1997년 6월 20일까지)-몽골 첫 번째 대통령이다.

9) 권영순, 1996a: 389

10) 권영순, 1996b: 392

(2) 한국에서의 몽골인들의 체류 현황

[표2] 재한 몽골인 한국 체류 현황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체류몽골인	46,286	48,185	42,511	37,012	53,038
불법체류몽골인	15,919	17,510	17,006	15,969	15,359
결혼이민자	2,438	2,497	2,486	2,502	2,528

출처: 각 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 연보

현재 재한 몽골인들의 수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약68,397명으로, 몽골 인구가 3,457,548명<sup>11)</sup>임을 감안할 때 전체 인구의 1,98% 정도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합법체류자는 53,038이고 불법체류자는 15,359명이라고 2022년에 12월에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통계되었다<sup>12)</sup>.

[표3] 재한 몽골인 한국 합법체류 연령별 현황

구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몽골인	53,038	3,900	4,425	13,171	16,015	9,001	4,840	1,686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 2022.12<sup>13)</sup>

위에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서 발표된 자료인 <표3>을 살펴보면 한국에 합법체류 연령 중에 30-39세가 16,015명으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이 1,686명으로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30-39세 이후로 많이 체류하는 연령대가 20-29세들이다. 0-9세, 10-19세 아이들도 다소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11) 몽골통계청: <https://www.1212.mn/mn>

12)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

13)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체류하는 몽골인들이 젊고, 다음 세대 아이들도 부모님을 동반해서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

## 2. 한국교회 내 몽골인 사역의 역사 및 현황

몽골은 1990년에 사회주의(Socialism)에서 민주주의(Democracy)로 전환했고 한국과 외교 관계도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 1995년에 처음으로 몽골에서 한국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오기 시작했다. 그 당시 한국사회는 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아무런 도움과 배려를 줄 수 없는 현실이었다. 몽골 근로자들을 사랑으로 품은 곳은 바로 한국교회였다.

한국교회 내 몽골인 사역의 역사는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3교회 서울 외국인선교교회(유해근 목사 몽골교회), 온누리교회 몽골예배, 주안장로교회 몽골예배로 시작되었다<sup>14)</sup>. 주안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1996년 9월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역의 시초인 외국인 선교국이 조직되었다. 당시엔 외국인 선교부를 창립할 때에 몽골인 1명을 시작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sup>15)</sup>

제한 몽골인 사역은 199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28년의 역사를 이해동 목사의 견해로는 총 4기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기 태동기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로 유해근 목사의 교회 시작이 중요했고, 2기 성장기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로 디엠엔 DMN(Diaspora Mongolian Network)이 2001년에 시작되었고, 3기 표출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로 2008년 몽골제자교회의 개척이 중요했으며, 4기 성숙기는 2012년부터 현재로 나눌 수 있는데, 제한몽골인기독교연합회 MSAK(Mongolian Christian Association in Korea)의 창립이 2012년이다<sup>16)</sup>.

위 기별로 몽골인 사역의 특징들을 표로 만들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4] 제한 몽골인 사역의 역사적 시기 및 특징

---

14) 이해동 목사, 2016a: 5-6

15) 문상호, 2013: 82

16) 이해동 목사, 2016b: 5-6

구분	시기	특징
태동기	1996~2000	대다수 불법체류 공홀사역: 당시 몽골인들은 한국교회에 도움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공홀사역 형태였다. (충현교회, 유해근 목사).
성장기	2001~2007	불법체류에서 합법체류로 영적성장: 공홀사역에서 영적운동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DMN(Diaspora Mongolian Network), 십일조, 몽골단기선교, 수련회, 리더훈련).
표출기	2008~2011	합법단기에서 장기(가족) 영적에너지의 표출: 성장기에 축적된 영적에너지가 표출되는 시기고, 이 영적에너지를 몽골인들은 독립적으로 교회개척과 신학교 개교로 표출했다.
성숙기	2012~ 현재	단순장기체류에서 자녀교육으로: 사역의 성숙과 디아스포라를 향하여(제자양육, 선교사 파송, 교회개척), 재한몽골인기독교연합회설립 MSAK(Mongolian Christian Association in Korea) 2012년5월

(1) 한국교회 내 몽골인 사역의 현황(2024년 기준)

1996년 한국교회 내 첫 몽골인 모임이 시작된지 벌써 28년이 되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몽골인 예배(교회)가 점점 늘었고, 2024년 현재는 62개의 몽골인 예배(교회)가 설립되어서 주님 앞에 모국어인 몽골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표5] 재한 몽골인 교회의 위치 및 개수(2024년 2월 현재)

위에 재한 몽골인 교회의 위치 및 개수 <표5>를 살펴보면 총 62개의 몽골인 예배(교회)가 있다. 위치로는 크게 서울, 경기도, 지방으로 세 분류로 나

누었고, 상세한 위치로는 서울에는 13개의 구에서 27개, 경기도에는 12개의 시에서 15개, 지방에서는 14개의 곳에서 20개가 있다.

위치	상세한 위치	개수	해당 교회(몽골인 예배)
서울	성동구	3	왕십리교회, 성광몽골교회(독립), 연합몽골교회(독립)
	성북구	2	장석교회, 길위에몽골교회(독립)
	광진구	2	한국중앙교회, 나섬교회
	종로구	3	동신교회, 성결중앙교회, 서울베다니마을몽골교회(독립)
	강북구	1	신성교회
	중랑구	7	중앙성결교회, 마라나타몽골교회(독립), 서울몽골나눔교회(독립), 예수제자몽골교회(독립), 영락교회, 동일교회, 금난교회
	노원구	1	장석교회
	영등포구	1	여의도순복음교회
	구로구	1	갈릴리교회
	용산구	1	서빙고온누리교회
	동대문구	2	다하나교회, 동천교회
	중구	2	영락교회, 서울몽골교회(독립)
	강남구	1	예수사랑교회
경기도	성남시	1	지구촌교회
	용인시	1	지구촌교회
	안양시	1	새중앙교회
	고양시	1	게르방교회
	평택시	1	평택온누리교회
	하남시	1	하남몽골교회(독립)
	부천시	2	부천제일교회, 부천몽골교회(독립)
	김포시	1	김포온누리교회
	안산시	2	안산동산교회, 안산온누리교회
	광주시	2	영원한찬양몽골교회(독립), 외대몽골교회(독립)
	수원시	1	수원중앙침례교회
	오산시	1	오산몽골교회(독립)
지방	인천광역시	4	주안장로교회, 인천온누리교회, 인천감리교회, 공촌교회
	광주광역시	2	광주사랑몽골교회(독립), 광주몽골교회(독립)
	부산광역시	2	수영로교회, 연제교회
	울산광역시	2	울산교회, 울산시민교회
	대구광역시	1	대구내일몽골교회(독립)



대전광역시	1	대전남부교회
경남 김해시	1	모든민족교회
경상북도 포항시	1	포항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1	구미제일교회
전라남도 목포시	1	목포사랑의교회(독립)
충청북도 청주시	1	
충남 천안시	1	하늘중앙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1	

[표6] 재한 몽골인 교회의 사역자 수, 직분, 성별, 국적(2024년 2월 현재)

사역자 직분 및 국적	수	성별	
		남	여
몽골인 목사	24	남-19	여-5
몽골인 전도사	20	남-11	여-9
한국인 목사	17	남-16	여-1
한국인 전도사	1	남-1	여-0

위에 재한 몽골인 교회의 사역자 개수, 직분, 성별, 국적 <표6>을 살펴 보면 총 62개교회의 사역자들 가운데 직분으로 보면 목사가 총 41명이고, 전도사가 21명이다. 그리고 몽골인과 한국인으로 구분해 보면 몽골인이 44명이고, 한국인이 18명이다. 사역자들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47명이고, 여자가 15명이다.

한국 내 몽골인 예배(교회)가 초기에는 한국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한국인 또한 몽골인 목사가 독립하여서 사역하는 케이스가 있다. 그 수가 총 17개가 된다.

## (2) 재한몽골인기독교연합회 MSAK의 현황(2024년 기준)

재한몽골인기독교연합회 MSAK(Mongolian Christian Association in Korea)은 2012년 5월에 설립되었다<sup>17)</sup>. 설립된 주 목적은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몽골인 및 전 세계 몽골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몽골인 예배를 위해

17) 이해동 목사, 2016c: 7

서 모이는 교회들 및 그 사역자들을 네트워킹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받게 할 수 있기 위함이다. 설립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재한 몽골인 교회들 연합 모임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표6] 재한몽골인기독교연합회 MSAK의 회장들 및 이사회 구성

순서	회장 이름	해당년도	성별	직분	이사회 구성
첫 번째	Rentsen-Ochir	2012-2016	남	목사	총 9명이고 6명의 몽골인 목사 및 3명의 한국인 목사
두 번째	Tsedevdorj	2016-2018	여	목사	총 8명이고 6명의 몽골인 목사 및 2명의 한국인 목사
세 번째	Gan-Otgon	2018-2021	남	목사	총 8명이고 6명의 몽골인 목사 및 2명의 한국인 목사
네 번째	Sukhbaatar	2021-현재	남	목사	총 8명이고 7명의 몽골인 목사 및 1명의 한국인 목사

(재한몽골인기독교연합회 MSAK(Mongolian Christian Association in Korea) 부회장 울지몽흐 몽골인 목사 증언 채록)

현재 재한몽골인기독교연합회 MSAK(Mongolian Christian Association in Korea)에 총 33개의 몽골인 교회가 정식 회원 등록을 했고 회장 및 이사회를 투표로 선발하고 있다.

[표7] 재한몽골인기독교연합회 MSAK의 주 사역

월	주 모임 및 행사
1월	매년 1월1일에 새해 맞이 연합 예배 교회 지도자들의 포럼
2월	몽골 설날(차강사르) <sup>18)</sup> 연합수련회 2박3일
3월	몽골 여성의 날 <sup>19)</sup> 관련 여자들 교육 몽골 남성의 날 국군의 날 <sup>20)</sup> 관련 남자들 교육
4월	부활절 연합예배 미션스쿨

5월	몽골인들을 위한 연합기도회 가정 세미나
6월	선교 MSAK 봉사자들 가족 간 교제
7월	나담축제(몽골정통 대축제) <sup>21)</sup>
8월	각 교회 지도자들의 세미나
9월	World Lausanne Leadership conference
10월	
11월	Thanks giving 연합예배
12월	각 교회 지도자들의 연합 크리스마스 행사

- 18) 몽골의 가장 큰 명절은 '차강사르'이다. 차강-사르는 몽골어로 번역하면 '하얀 달'이라는 뜻이며 3일 정도 이어진다. 새해에는 하얗고, 깨끗하고, 순수한 한해가 되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설날의 색인 하얀색과 더불어 흰색의 음식을 먹는데, 대표 음식으로는 유제품과 몽골 정통 마두인 보즈가 있다. 설 하루 전날을 '비투웅'이라고 한다. '비투웅', 이날은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날이며 아침부터 대청소를 해 '새해에는 더러운 것 하나 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자'라는 뜻깊은 의미가 있다. 설날 당일 아침에 몽골 전통 옷(테일)을 입고 해 뜨기 전에는 집안 제일 높으신 어른에게 가장 먼저 (사이항 신레래-새해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세배 인사를 한 후 우유 차(수테차)를 마시고 그 뒤에 각 가정에서 설날 행사가 시작된다.
- 19)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러시아, 이태리, 폴란드에서 온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누리고자 노력해왔던 것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1975년부터 세계여성협회는 매년 3월 8일을 국제여성권리보호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몽골은 사회주의 체제를 수용하면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 큰 행사 중 하나이다. 이 날은 국가 공휴일로 모든 남자들이 어머니, 아내, 누나, 여자 친구에게 축복의 말과 함께 사랑이 담긴 선물을 전달한다. 또한 남자들은 아침부터 부엌에서 여자들이 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곳곳의 문화 회관에는 어머니, 여성을 기리는 공연들로 가득 차 있으며 사람들은 어머니나 아내와 함께 가족동반으로 공연을 즐긴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나 단체 별로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회식을 하며 이날 남자들이 한 톱 내며 여성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한다. 국가에서는 그 해의 유명하고 큰일을 한 여자들에게 상과 표창장을 수여한다.
- 20) 몽골 남자를 위한 날, 몽골 국군의 날: 몽골 여성들이 대접 받는 날이 '여성의 날'이라면 몽골 남성을 위한 날도 있다. 바로 3월 18일 '몽골 국군의 날'이다. 몽골을 독립시킨 '담딘 수흐바타르 장군'이 1921년 3월 18일에 창설한 기마부대를 몽골 현대 군대의 시작으로 보고 1947년부터 매년 이를 기념하고 있다.
- 21) 나담(naadam)은 해마다 7월 11일~7월 13일까지 몽골 전역에 걸쳐 즐기는 전국적인 축제로, 씨름·말타기·활쏘기 등 3가지의 전통 경기가 주를 이룬다. 몽골의 나담은 중앙아시아의 광대한 초원에서 오랫동안 유목 생활을 해온 몽골의 유목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나담 축제 기간에는 구비문학·공연 예술·민족 음식·공예, 그리고 우르틴 두(長歌), 후미(Khömei, '회메이'라고도 함) 창법, 비에 비엘게(bie biyelgee) 춤, 현악기 모린후르(morin khuur) 연주 등 여러 가지 문화 형식이 모두 선보인다.

<표6>에서 언급된 바 같이 매년 10월을 제외하고 연합 예배 및 모임을 가지고 있고, 매월 첫 번째 토요일마다 연합기도회를 한다.

### 3. 신앙교육의 사전적 의미

#### (1) 신앙교육의 몽골어에서의 사전적 의미

‘신앙교육’이라는 단어를 몽골어로 표기하면 ‘итгэлий н боловсрол’가 된다. 또한 ‘믿음의 교육’이라는 단어도 몽골어로 표기하면 똑같이 ‘итгэлий н боловсрол’가 된다. 몽골어로 ‘신앙교육’과 ‘믿음의 교육’이라는 단어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итгэл(신앙)’이라는 단어와 ‘боловсрол(교육)’이라는 단어를 따로 따로 몽골어대사전에서 해석해 보기로 한다.

‘Итгэл(신앙)’이라는 단어를 보면 첫 번째는, бат нот(확실하다), үнэмших санаа(신뢰하는 사고), сэжиггүй үнэмшил(의심할 증거가 없는 신빙성), най длага(신뢰), 두 번째는, тэнгэр бурханд итгэн үнэмших(하늘과 신을 신뢰하다)라고 설명한다.<sup>22)</sup>

‘Боловсрол(교육)’이라는 단어를 보면 첫 번째는, хувь хүний эзэмшсэн тогтолцоот мэдлэг, чадвар, мэргэжил мэдлэг эзэмшсэн(개인이 습득한 체계적인 지식, 능력, 전공을 취득한 것), 두 번째는, зохих хэмжээний мэдлэг эзэмшсэн(웬만큼의 지식을 습득한 것), 세 번째는, аливаа үйл ий н үр дүн дагавар(어떤 행동의 성과 및 결과)라고 설명한다.<sup>23)</sup>

#### (2) 신앙교육의 한국어에서의 사전적 의미

‘신앙’(영어:faith)이란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사랑·의뢰심을 갖는 일이라고 정의한다(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sup>24)</sup> <기독교교육학사전>(Issler,

---

22) <https://mongoltoli.mn/dictionary/>

23) <https://mongoltoli.mn/dictionary/>

24) <https://stdict.korean.go.kr/>

2001, 505-508)에서는 “신앙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혹은 대상을 향한 신뢰 혹은 믿을 만함, 확신으로 보통 법적 표현”이라고 설명한다.<sup>25)</sup>

‘교육’(영어:education) 또는 가르침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또는, 교육은 피교육자가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또한 그로 인하여 사회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피교육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넓은 의미로는, ‘개인의 정신, 성격, 능력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와 경험’을 교육으로 보기도 한다.<sup>26)</sup>

### (3) 몽골어와 한국어의 ‘신앙교육’ 사전적 의미 비교

몽골어 ‘Итгэл(신앙)’의 의미와 한국어 ‘신앙’의 의미에 있어서 사전적 의미의 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점을 먼저 살펴보면 몽골어 ‘Итгэл(신앙)’은 신뢰이고, 한국어 ‘신앙’은 의뢰심이다. 그리고 몽골어 ‘Итгэл(신앙)’과 한국어 ‘신앙’의 사전적 의미가 상이하다고 여겨지는 점을 살펴보면 몽골어 ‘Итгэл(신앙)’은 확실함이고 한국어 ‘신앙’은 자비-사랑이다.

몽골어에서 ‘Боловсрол(교육)’의 의미 및 한국어에서 ‘교육’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로는 거의 유사하게 설명되었다.

## 4. 몽골인 사역의 현실과 이상적 신앙교육의 괴리 및 해결 방안

‘Итгэл(신앙)’은 확실함과 자비-사랑이다. ‘Боловсрол(교육)’은 개인의 정신, 성격, 능력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와 경험이다. 한국교회 내 몽골인 사역에 있어서 예배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첫째는 장소, 둘째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셋째는 몽골인 사역자들의 사역 조건 혹은 유형의 문제, 넷째는 외국인으로서 겪는 여러 문제들이다.

첫째 요소인 장소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주

---

25) 박종석, 2018: 6

26) <https://ko.wikipedia.org/wiki/>

일 오후 1시나 2시부터 4시나 5까지(각 한국교회마다 지원해주는 시간 때가 조금씩 다름) 정해진 곳을 사용한다. 아이들은 주로 오전 11시에 한국교회 어린이 부서 별로 나누어진 장소에 가서 미리 예배를 드린다. 그 시간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부모들은 한국교회 본 예배에 참여하기도 한다. 끝나고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점심을 한국교회 내부 식당에서 먹는다. 점심을 먹고 몽골인 예배 장소로 이동하여 예배 준비하고 모국어인 몽골어로 찬양을 한다. 설교 시간에 몽골인 사역자(목사나 전도사)가 나와서 설교한다. 몽골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이들은 자모실에서 놀면서 부모를 기다린다. 만약에 아이가 2세 미만이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 뒤에 앉아서 돌보면서 예배에 참여한다. 엄마가 자모실에 들어가게 되면 몽골인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 그 이유는 몽골인 예배 모임 하는 장소 뒤에 따로 자모실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주일 하루 내내 몽골 예배와 몽골인들만을 위한 공간을 확보 제공해야 한다.

둘째 요소인 시간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회 내에서는 일주일에 딱 한번 모임 수 있다. 주일 오후 1시나 2시부터 4시나 5까지(각 한국교회마다 지원해주는 시간 때가 조금씩 다름) 정해진 시간을 사용한다. 몽골인 예배 시간은 1시간 30분이 기본이다. 예배가 끝나면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둘러 앉아 교제를 30분정도 나눈다. 남은 1시간은 어떤 교회는 성경공부를 하고, 어떤 교회는 한국인 스태프들과 회의를 한다. 현실적으로 한국교회 내 몽골인 예배는 모국어인 몽골어로 예배 드리는 1시간 30분과 1시간의 성경공부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교육이 되는 것이다. 몽골인 성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몽골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한국 생활을 하게 된 경우와 한국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두 가지 케이스다. 사역자들은 새신자 및 일반 성도에게 신앙교육을 진행하여 신앙의 성숙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는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이를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 부족으로 신앙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게 현실이다. 신앙교육을 위한 양질의 시간 확보를 한국교회에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셋째는 몽골인 사역자들의 사역 조건 혹은 유형의 문제다. 사역자 대부분은 주로 한국교회 내에서 파트타임 형식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몽골인 사역자가 유학생이면 주중에 공부를 하고, 가장인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육체적 노동의 아르바이트를 한다. 한국교회 내 몽골인 사역자들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파트타임 형식의 사역을 풀타임 형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성이 마련된다. 그러면 사역자 입장에서는 오직 사역에만 집중할 여유가 생긴다. 사역자가 노동으로 육체적 부담이나 한계에 직면하면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넷째는 외국인으로서 겪는 여러 문제들이다.

비자와 관련한 문제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의 비자는 1년짜리 D-2이다. 1년마다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실정인데 그 조건이 까다롭다. 통장 잔액 증명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몽골인 사역자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만약 가족과 함께한 경우라면 비자 종류가 F-3인데 통장 잔액 증명액은 가족 수만큼 늘어나서 더욱 더 부담이 가중된다. 유학생 신분이라면 학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에 따라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는데 몽골인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도 민감한 사안이 된다.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비자는 D-6 종교 비자다. D-6 종교 비자를 받으려면 몽골인 사역자가 속한 한국교회에서 법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앞서 열거한 문제들에서 한결 자유롭게 되어 사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

숙소 문제는 몽골인 사역자가 낯선 한국에 정착할 때 중요하다. 대부분의 몽골인 사역자들은 스스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녹록치 않은 경제적 상황과 낯선 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안정된 공간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몽골인 사역자들의 주거 공간은 열악하기만 하다.

몽골인 사역자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에는 언어 소통 문제도 있다. 몽골인 사역자는 몽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최우선인데, 한국교회 관계자들과 몽골인 성도들간의 가교 역할도 중요하다. 그런데 몽골인 사역자들은 거의 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서툴다. 어떤 경우에는 몽골인 사역자 부인인 사모가 한국어에 익숙해서 소통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다 바람직한 것은 몽골에서부터 사역자 스스로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 문제이다. 몽골인 사역자들은 가족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케이스가 독신보다 훨씬 많다. 몽골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다. 두 경우 다 아이들은 문화적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는다. 특히 한국학교와 학원의 또래 집단 안에서, 교회학교 예배와 교제 안에서 정체성 문제가 더 두드러진다. 신앙은 관계성에서 성장하는데 사회성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에 결핍이 생기는 것이다. 성장기에 있어서 문화적

정체성은 한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볼 때 그 영향력이 아주 중요한데, 그 시기에 혼란을 겪는 것은 불행이다. 이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 몽골인 사역자 가정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한국교회에서 다문화 이해를 위한 관심과 실천이 요구된다.

한국교회는 몽골인 사역자들의 고충과 현실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들을 해야 한다. 사역자가 지쳐 있으면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설 수 없다. 한국교회 내 몽골인 사역 및 사역자에게 집중해서 구체적인 현실을 들여다 보고 그들의 사역에서 일어나는 딜레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절실하다.

### III 결론

70년 동안 몽골은 사회주의(Socialism)에 묶여 있었다. 이렇게 갇힌 속속에서 해매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1990년에 민주주의(Democracy)로 전환시키셨다. 올해로 사회주의(Socialism)에서 민주주의(Democracy)로 전환한 지 34년이다. 민주주의(Democracy)라는 자유함이 주어진 직후 한국 등 여러 나라와 외교관계 수립도 활발하게 이루지기 시작하였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재한 몽골인들의 수는 약 68,397명으로, 몽골 인구가 3,457,548명임을 감안할 때 전체 인구의 1.98% 정도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한국교회 내 몽골인 사역의 역사는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한국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신학 공부를 통해 몽골인 사역자로 세워지는 기회들이 생겼다. 또한 몽골에서 사역을 하다가 유학 등의 이유로 한국에 와서 몽골인 예배(교회) 사역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어서 2012년에 재한몽골인기독교연합회설립 MSAK(Mongolian Christian Association in Korea)가 설립되면서 교회 지도자들 중심으로 몽골인 예배(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국교회 내 첫 몽골인 모임이 시작된 지 벌써 28년이 되었고, 그동안 62개의 몽골인 예배(교회)가 설립되어서, 재한몽골인들은 주일마다 지교회 안에 모여 모국어인 몽골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재한 몽골인 교회의 위치로는



크게 서울, 경기도, 지방으로 세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개수로는 서울에는 13개의 구에서 27개, 경기도에는 12개의 시에서 15개, 지방에서는 14개의 곳에 세 20개가 있다.

한국 내 몽골인 예배(교회)들이 숫자적으로는 늘어났고 더불어 재한 몽골인들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재한 몽골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몽골인 예배(교회) 성도들의 신앙교육이 요구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 한국교회 내 몽골인 사역자들이 오직 사역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역 환경 및 신앙교육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앞서 거론한 문제들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다.

첫째, 장소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주일 하루 내내 몽골 예배와 몽골인들만을 위한 공간을 확보 제공해야 한다.

둘째, 시간 문제에 있어서 신앙교육을 위한 양질의 시간 확보를 한국교회에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셋째, 몽골인 사역자들의 사역 조건 혹은 유형의 문제에 있어서는 파트타임을 풀타임 형식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

넷째, 비자 연장 문제, 숙소 문제, 언어 소통 문제, 아이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교회가 보다 더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

사역자는 오로지 사역에만 집중해야 한다. 사역자가 장소와 시간과 사역 조건과 외국인으로서 갖게 되는 여러 문제에 직면하면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몽골인 사역자가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몽골인 사역자들의 고충과 현실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들을 해야 한다. 사역자가 사역 외의 문제에 봉착해 있으면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과 구원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없다. 한국교회는 몽골인 사역 및 사역자에게 집중해서 구체적인 현실을 들여다 보고 그들의 사역에서 일어나는 딜레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절실하다.

## 참고문헌

- 강용원·이현철 (2009a). “교회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의미와 활용 가능성 탐색.” 『고신신학』. 399-426.
- 강용원·이현철 (2011b). “성장하는 교회의 특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고신신학』. 151-191.
- 강용원·임창호·이현철 (2010). “한국 사회 내 북한이탈주민의 삶—기독교교육적 접근.” 『기독교교육논총』. 459-490.
- 권영순 (1996). “한 몽골 현대 교류를 회고하며.” 한국북방학회논집. 2. 381-401.
- 김경근·서화신 (1999). “멀고도 가까운 나라 몽골.” 선교와 현장. 97-127.
- 김봉춘 (2015). “한국 기독교의 몽골 선교 현황과 선교학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김석근 (2009). “샤머니즘, 라마불교, 그리고 사회주의: 몽골에서의 ‘정치와 종교’ 혹은 ‘이념’의 역사정치학.”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61-288.
- 김은호 (2014). “교차문화 의사소통의 관점으로 본 몽골선교 - 세계관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571-594.
- 김은호 (2018). “교회음악을 활용한 몽골 교회의 재도약을 위한 제안.” 『신학과 실천』. 595-620.
- 김은호 (2020). “몽골교회의 내적성장 위한 예배회복 선교전략.” 『신학과 실천』. 623-649.
- 김은호 (2020). “선교적 관점에서 조명해 본 몽골선교.” 『신학과 실천』. 579-601.
- 김창운 (2021). “제한 몽골 청소년들의 문화 지능 (cq) 발달과 기독교 선교학적 함의.”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205-225.
- 나랑바타르 (2016). “개신교가 주한 몽골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다문화와 인간. 75-120.
- 대한예수교장로회 몽골현지선교회 (2012). 『선교의 동반자, 초원길을 복음의 길로!』. 서울: 한들출판사.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부 (2009). 『몽골』.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문상호 (2013).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역교회의 선교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 문창선 (2016). “국내 이주민 선교의 흐름과 사역 진행.” 미션인사이트, 51-74.
- 박종석 (2018). “전인적 신앙 성숙을 위한 기독교신앙교육: 기억, 정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 보양희식 사인잘갈 (2015). “제한 몽골인의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이용 그리고 문화적응.”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사랑치맥 (2015). “한국에 있는 몽골인 교회 현황과 대안.” 석사학위논문.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신성자 (2012). “몽골 이주노동자들의 결혼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고립, 스트레스와 대처유형, 종교단체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11-244.

- 신성자·미칠도칠 오통도람 (2012). “제한 몽골 합법·불법 이주노동자들의 직업만족도, 사회적 지지, 희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희망의 매개효과와 체류자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435-462.
- 오태균 (2006).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교육적 과제.” 기독교교육정보. 183-207.
- 이강애·이민경·정유리 (2015). “몽골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특별한 헌신과 돌봄.” 현대사회와다문화. 116-127.
- 이대학 (2022). “몽골 기독교의 해외 선교.” Acts 신학저널. 242-276.
- 이미정 (2022).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예배와 양육의 상황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 이신철·이현철 (2013). “한국사회 내 미조직 및 개척교회의 딜레마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의 도시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215-244.
- 이영철 (2013). “몽골어 성서 번역의 특징: 한국어 성서 번역과의 비교 연구.” 성경원문연구. 77-94.
- 이채문·이현철 (2014). “한인 디아스포라의 생활사에 대한 국가별 비교 연구: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5-41.
- 이해동 (2016). “제한몽골교회설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미발행.
- 이현철 (2013a). “한국 교회학교 교사들의 딜레마에 관한 내러티브(narrative) 탐구.” 『개혁논총』. 247-279.
- 이현철 (2015b). “중국 한인 디아스포라의 초기 정착지 및 신흥 정착지 생활 특성에 대한 질적 연구.” 디아스포라 연구. 39-60.
- 이현철 (2015c). “한국교회 내 부교역자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성경과신학. 349-377.
- 이현철 (2018d). “한국교회 내 교리교육의 부재와 딜레마에 대한 내러티브(narrative) 탐구.” 『갱신과 부흥』. 178-200.
- 이현철 (2021e). “소형교회 은퇴목회자의 삶과 딜레마에 대한 질적연구.” 『갱신과 부흥』. 343-370.
- 이혜정 (2019). “몽골과 한국의 다종교 비교연구: 불교와 샤머니즘, 민간신앙의 습합현상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인간. 163-193.
- 장주창 (2001). “제한 몽골인 이주 노동자 선교 전략.” 석사학위논문. 總神大學校.
- 전윤조 (2022). “한국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의 삶과 사역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 정원래 (2023). “13세기 서방교회의 몽골제국과의 접촉 및 선교적 노력에 대한 고찰.” 『성경과신학』. 111-150.
- Battogtokh, U. (2020). “제한 몽골 이주노동자의 효과적인 귀환을 위한 재통합정책의 필요성.”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Narantsetseg, N. (2018). “한국사회 내 몽골노동자들의 생활 경험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 웹페이지

몽골어 해석 대사전 <https://mongoltoli.mn/dictionary>. (2024.02월)  
몽골통계청 <https://www.1212.mn/mn>. (2024.01월)  
중도일보 <https://m.joongdo.co.kr>. (2021년02월)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2024년02월)  
유네스코와 유산 <https://heritage.unesco.or.kr>. (2010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https://kofice.or.kr>. (2010년.03월)  
한국어: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2024.02월)  
한국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2022.12월)  
하이몽골리아 <https://himongolia.net>. (2022년.03월)